

수리 땅 독도 이야기 제 5호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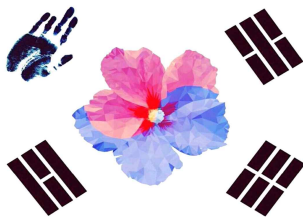
발행처 신서고 하누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독도의 모습은 어떨까?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다른 나라는 일본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각각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등이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지,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 바로 잡을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다. 512년 신라로 우산도(지금의 독도)가 편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칭한 이후 1952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했다. 그 후 독도의용수비대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비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각 언론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독도의 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였고 특히 국민들에게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해주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도에 우리나라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일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독도가 지리적으로 뛰어나며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능성

이 많은 지역임을 알고 난 뒤부터 일방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빌미로 지금까지 억지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법이나 역사적으로 독도를 통치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여러 마찰이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왜곡된 사실을 교과서에 당당하게 기재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론을 결집시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은 독도영토 분쟁 문제를 한일간의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한 입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일본 국민들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연히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독도가 국제법적이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 위다오라고 불림)를 두고 영토 분쟁을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



미국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 6.25전쟁 당시 한국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지만 결과론적으로 위의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비록 과거에는 미국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될 수도 있다며 입김을 넣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는 한국, 일본 양국 사이 영토 분쟁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



유럽은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처리 과정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독도가 확실하게 우리나라영토로 편입하게 된 것은 영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도 일본과 전쟁 중 이었는데, 일본의 패망 후, 섬나라였던 영국은 '섬'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독도를 원래 주인인 한국에 돌려주게끔 강화문서에 삽입 하였던 것이다. 현재 유럽은 독도분쟁의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이 전달된 편이 아니라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만 독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와 같이 학생들은 독도 알림 모임에 참가하거나 독도 홍보를 위한 공모전에 참가하며 독도를 알리는데 있어서 작은 보탬을 더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 독도 분쟁의 대한 현실적인 이면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팸플릿을 만들어 직접 외국인들에게 전달해 알리는 방법이 있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왜곡된 사실을 일본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는 위예의 우리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 또한 간절하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곡된 사실을 교과서에 기재하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독도 영토 분쟁으로 국제 재판에 올라가게 된다면 어떡하든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해 유리한 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행위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알맞게 대응하여 일본의 억측을 막는 것이 제일 간절한 시점이다.

우리는 절대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있는 순간 우리의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한 발짝씩 넘어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한다.